

■ 연구원 소식

○ 제 52차 시민문화강좌 안내(10월 26일)

제 목 : “전북지역 친일부역의 기억과 흔적”
강 사 :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일 시 : 2019년 10월 26일(토) 16시부터
대 상 : 회원 및 시민
수강료 : 무료

52회 문화강좌는 전북지역 곳곳에 산재한 친일 부역의 기억과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5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전북지역에서는 피맺힌 항일운동 뿐 아니라 일제의 편에 섰던 수많은 친일파의 기억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 기린봉에만 가도 동학농민혁명 당시 진압군으로 앞장섰고 을미사변 당시에 우범선, 이진호 등과 함께 일본 낭인과 함께 했던 훈련대 대장 이두황의 묘가 버젓하게 서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위해 불철주야 분투하는 민족문제연구소 김재호 지부장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북지역 친일부역의 기억과 흔적”을 주제로 우리지역에 산재한 친일파의 기억과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을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제52회 문화강좌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네 번째 이야기

그림이면 그림, 글이면 글, 차고 넘치는 재주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명 봉 교수께서 보름간 네팔을 다녀오신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네팔의 '은둔 왕국' 무스탕 기행”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로-만탕” 마지막 이야기

트레킹의 반환점을 돌았다. 이제는 새롭게 길을 바꿔 좀숨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모두들 하루 쉬기로 했다. 포터들에게도 상여금을 보탠 달콤한 휴가가 주어졌다.

일행들은 로-만탕 주변을 관광하기로 했다. 8시에 짐차를 타고 초오서 마을로 달려갔다. 로-만탕의 동쪽 마을로, 30분가량 걸렸다. 이곳에는 2,500년 전의 티벳 사람들이 조성한 전통 가옥이 현존한다. 닥마르에서 보았던 동일한 혈거(穴居)의 형태인데. 일부 굴속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고 있단다.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보니, 내부의 통로가 아주 비좁고 답답하다. 겨우 사람 하나가 비좁고 다닐 수 있을 정도다. 천정도 당연히 얇았으니, 몇 번인가 머리를 째었다. 흠먼지 또한 폴싹폴싹 일어났다. 통로의 오르막은 사다리로 만들어졌는데, 그때그때 바깥쪽으로 채광용 창구멍을 뚫었다. 복도 역할을 하는 동굴의 앞쪽에는 주방이나 다용도실로 쓰였음직한 공간이 먼저 나타난다. 그리고 안쪽 좌우로 크고 작은 방들이 이어진다. 창고로 쓰였을 공간은 따로 만들어졌기도 하다. 이 주거공간을 통틀어서 '시자종 케이프'라고 부른다. 좁은 굴속을 비좁고 다니느라, 일행들은 모두 먼지투성이가 되어 바깥으로 나왔다.

석회 성분이 잔뜩 해서 차라리 하얗게 흐르는 개울을 건너 니푸 곰파로 갔다. 입구의 요사채에 해당하는 건물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렇다. 이곳은 학교의 기능까지 겸비한 사찰이다. 재학생이 모두 45명인데, 일반 과정과 승려 양성 과정으로 양분되었단다. 일반 과정의 학생들은 티벳어·네팔어·영어·과학·사회 과목을 배운단다. 동자승들에게는 별도의 과정이 준비되었단다. 교사 5분과 승려 2분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는데, 교사(校舎)는 7칸이다.

서너 군데의 곰파를 더 구경한 다음 마을 입구에 이르렀을 때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웅성대는 중이었다. 처음에는 마을회의가 있나보다 여겼는데, 나중에 짚차를 타려다보니 운구행렬이 다가왔다.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노인의 시신이란다. 여섯 사람이 천으로 덮은 시신을 들것에 들고 지나갔다. 뒤따르는 사람도 없는 덤덤한 장례 행렬이었다. 영혼이 떠난 시신을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는 이곳 사람들의 관념 탓이다. 추측과 달리 조장(鳥葬)이나 천장(天葬) 대신 화장(火葬)을 한단다.

오후에는 말을 타고 마을 주변을 돌았다. 그리고 이곳에 남은 무스탕 왕국의 궁궐 걸모습을 구경했다. 공사 중이었고,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한다. 기실 무스탕 지역에 사는 인구도 겨우 만 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출입 신고를 위해 왕궁 앞의 관광사무소에 들렀을 때다. 벽에 붙은 통계치를 열람할 수 있었으니, 작년에는 도합 3,946명의 외국인이 무스탕 지역을 방문했다고 한다. 한국인은 97명으로 13번째 순위였다. 1위는 프랑스 사람들로, 모두 691명이 이곳을 찾았다. 그 다음은 392명의 독일인과 352명의 미국인이었다.

룻지로 돌아온 우리들은 닭을 사다가 백숙을 끓여먹었다. 휴가를 맞은 우리들의 특식이었다. 없던 기운이 샘솟았다.

“로-만탕”에서 “야라”까지

안개비가 자욱한 아침이다. 달콤한 휴가는 단 하루로 그만이다. 몸과 마음을 추슬러 새롭게 길을 열어나갈 사람들이다. 8시 출발이다. 일행 한 사람을 추쌍으로 가는 짚차에 태우느라, 다른 날 보다 30분이 늦어졌다.

우리는 무스탕 계곡의 남쪽 길을 따라 오르막을 탔다. 재차 요약하면, 로-만탕의 북쪽에서 내려와 남쪽으로 향하는 행로다.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포기하는 구간이다. 이로 미루어, 우리 일행들은 참으로 용감하고 모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리라.

디이 마을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만날 때까지 거의 1시간 내내 오르막이다. 부럽게도, 일행을 태운 짚차가 중간에 나타났다가 하얀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마침 갈림길에서 쉬고 있던 두 여인이 우리에게 살구를 권했다. 미소가 환했으니, 바로 티벳의 웃음이었다.



디이로 향하는 길은 대체로 해발 4,000m를 유지하면서 가볍게 출렁거렸다. 날씨까지 흐려서 시원했으니, 내딛는 반걸음이 경쾌했다. 여인의 허리처럼 부드러운 능선과 남성적인 매력을 자랑하는 우락부락한 바위산들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장관을 펼쳤다. 신들을 찾아가는 더 없이 행복한 걸음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앞길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또다시 디이를 알리는 표시판이 나타난 뒤부터 경사가 급해졌다. 디이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45도 이상의 경사는 그침 없었다. 그래도 처음에는 주변의 멋들어진 경치에 홀려 힘든 줄을 몰랐다. 모두들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러다가 마치 동굴처럼 이루어진 협곡을 내려가면서부터 발걸음이 크게 더뎠다. 긴장감마저 슬쩍 감돌았다.

겨우겨우 협곡을 빠져나오자, 이번에는 모래와 자갈로 인해 미끄럽기 그지없는 급경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날씨도 조금씩 더워졌다. 어느 틈엔가 디이 마을이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였다. 살펴보니, 디이 마을은 해발고도가 대략 3,300m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고 700m 이상을 급경사로 내려왔다는 계산이다. 모두들 진땀을 흘렸다. 12시 30분. '히라' 롯지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때웠다. 모두들 감식을 했다.

2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난 뒤, 천변의 길을 따라 냇물을 거슬러 올라갔다. 앞쪽에서 근래에 만들어졌다는 출렁다리 하나가 일행들의 강 건너기를 도왔다. 모두들 발품을 아꼈다며 잠시 기뻐하였다.

계단이 놓인 능선 하나를 넘노라니, 햇볕이 매우 따갑다. 바람마저 숨을 멎쳤다. 강물은 아예 검은 흙탕물이다. 마침 첫 여울을 만났을 무렵, 해님이 먹구름 속으로 숨었다. 개울을 어렵사리 건넌 다음, 계단이 가지런히 놓인 산등성으로 오른다. 전방의 도로가 산사태로 막혔기에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었다.

마침내 해발 3,550m의 야라 마을이 보인다. 4시쯤 '사리봉' 롯지에 찾아들었다. 점심을 먹은 '히라' 롯지 보다 300m 더 높은 위치다. 장신구를 파는 여인 셋이 롯지 안에다 전을 펼쳤다. 구김살이라곤 전연 없는 여인들이다. 하늘이 우의(雨意)를 품었다. 참새 소리 요란하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새로 나는 속리산 상고암, 여섯 번째 이야기 - 몸을 낮춘 천왕봉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속리산 기암괴석 찰나가 모여 영겁의 풍광이 펼쳐졌지만, 바위들은 모른 척 단청을 피우며 하늘만 바라본다.

상고암에 들렀을진데 천왕봉에 오르지 않을 순 없다. 지친 걸음으로 다시 천왕봉을 향해 내딛는다. 천하의 명산을 오르는 기쁨에서 발걸음은 절로 가벼워진다. 상고암에서 천왕봉으로 가는 길은 그다지 험하지 않다. 기암괴석을 실컷 구경하는 재미 또한 크다. 기기묘묘하게 생긴 바위들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사람들을 홀린다.

주체하지 못하는 백두대간의 힘찬 기운은 곳곳에서 우람한 바위로 뿜어져 나온다. 계곡의 바위들도 대단한 크기지만, 능선의 바위들은 그들과 비교조차 거부한다. 이렇게 까마득히 치솟은 바위들이 길을 열어 주고, 문이 되어 준다. 내 스스로가 미물임을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바위틈의 산길이다.

천왕봉에 다가갈수록 산세는 점차 유순해진다. 험상궂은 바위들이 살며시 사라지고, 야트막한 잡목들이 우거져 나타난다. 백두대간이 일순 기세를 꺾으면서, 하늘나라 상제께서 주재하실 안온한 천왕봉을 빚고자 하는 준비 태세다. 발바닥도 흙길이 주는 감촉으로 포근해진다.

천왕봉은 여느 명산의 정상과는 사뭇 다르다. 갑자기 우뚝 솟아난 봉우리가 아니라, 주변의 봉우리나 능선과 어슷비슷한 높이에 평범한 자태를 지니고 있다. 천왕봉이라는 표지판이 없다면, 그냥 훌쩍 지나치기 쉬운 곳이다. 그래도 정상은 정상인지라, 올망졸망한 바위들이 땅거죽을 뚫고 나왔다. 해발 1,058m의 높이이다.



천왕봉에서 바라 본 전경 주변의 산들이 자세를 낮추었기에 천왕봉은 기약 없이 최고봉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북쪽을 바라보면, 역시 천왕봉이 왜 천왕봉인지 알게 된다. 험준한 산자락들이 꼬리를 물고 천왕봉에 몸통을 잇는 광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천왕께서 상주하시는 영험한 봉우리는 진정 스스로를 낮추었지만, 이렇게 추종하는 무리들의 우렁찬 함성과 용맹스런 기상이 천왕봉의 위세와 권능을 자연스럽게 증명해 준다.

앞쪽으로도 수많은 산들이 눈 아래 깔린다. 천왕봉을 향해 크고 작은 산들이 죄 머리를 조아렸다. 상제의 명을 남김없이 받들고자 산들은 귀를 활짝 열었다.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늘 새롭게 거듭나라는 귀중한 가르침이 천지에 울려 퍼진다. 이 깊은 감동은 날마다 붉은 낙조로 하늘에 새겨진다.



천왕봉에서 본 노을 모두가 신의 뜻이니 오늘 하루가 하루만은 아니란다. 내일을 꿈꾸어야 내일이 온단다.

다음 주는 백제의 한이 깃든 <계룡산 고왕암> 첫 번째 이야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계룡산”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김진경 회원이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시 중 가 : 3만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